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의 시도 : '공감의 경제학'

◎ 김태황 (기독교학문연구원 부학회장, 명지대 교수)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경제학

1.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의 시도 : '공감의 경제학'
2. 외로우신 하나님, 불통(不通)의 경제
3.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



기존 경제학 패러다임의 흐름

경제학이 세련되게 보일지라도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고작 약 240년에 불과하다. 철학과 문학에 비하면 신생이나 유치원생의 재롱에 비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은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철학과 윤리학의 기반뿐 아니라 고도의 수학과 통계학을 활용하여 가장 엄밀한 사회과학으로 발전해 왔다. 대표적인 경제학 교과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주제어는 합리성, 효율성, 형평성, 효용(후생), 한계성, 기회비용, 경쟁, 균형, 생산성 등이다. 경제학은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경제 주제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의사결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유능한 경제정책 담당자의 현명한 판단보다는 무수히 많은 개인들과 기업들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이 궁극적으로는 참여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18세기 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태동한 고전학파 경제학은 21세기 신고전학파 주류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합리성과 효율성의 시장경제 패러다임을 거대하게 쌓아 올려왔다. 반면에 노동의 가치보다는 자본의 가치가 우월적인 자본주의는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구조이며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패러다임은 시장경제를 대체하는 사회주의 국가경제를 지향해 왔다. 20세기 들어 케인즈는 경기 침체에 무기력해진 시장의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며 거시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열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러시아 공산주의와 독일 전체주의를 경험한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은 시장과 국가(정부)를 초월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경제 패러다임을 추구했다. 20세기 말부터 확산되고 있는 행동 경제학은 경제적 행위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고찰을 주목시킴으로써 경제적 의사결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편협하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회과학으로써 객관성을 강조해 온 경제학이 제한적이고 주관적인 경제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 패러다임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논쟁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산업혁명 이후 대규모 기계화와 산업화의 시기, 공산주의 혁명의 시기, 대공황의 시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시기, 탈(脫)규범(포스트모더니즘)의 시기 등을 거치면서 경제학은 감탄할만한 이론적 고찰과 정책적 처방을 제시해 왔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했고,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통화량 조절을 확대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기도 했고, 개인의 자유분방한 의사결정과 행동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서비스 공급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패러다임들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깊어지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 과잉 공급(불균형의 심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할만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학이 사후적인 현실 분석에는 치밀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원지가 미국 금융기관이었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현대 경제학 이론과 정책이 가장 발달한 국가의 첨단 금융산업에서 자율적인 시장 조절 장치가 가장 허술하게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금융산업도 구조가 조정되었지만 금융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다시 능청스럽게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기 침체에 금융시장을 위축시키기도 어렵다. 정부가 자신있게 큰 소리치며 감독하기에는 금융기관의 덩치가 너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몸놀림도 너무 빨라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기도 어렵다.

기독교 경제학의 새로운 관심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인간이다. 주인공의 역할이나 비중에는 견줄 바가 못되지만 주인공의 파트너가 된 인간도 덕분에 소중하고 골격 있는 존재로 대접받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에 기반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교감하는 과정이 본질이다. 아담을 비롯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창조 섭리에 동참하게 된 것은 기독교 신앙과 학문 영역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호관계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성령의 교통하심"(고전 13:13)은 이러한 상호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근본이 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속되고 있음을 보증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관계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서 발현되는 과정에 인간이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과 '공감'하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인간에게 알리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삼으시는 모험을 하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일까? 문득 하나님도 외로운 것이 아닐까 하는 다소 불경스러운(?) 생각이 든다.

이제까지 기독교 경제학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자원배분의 원리를 탐구하면서 섬김과 돌봄의 청지기적 경제활동을 강조해 왔다. 경쟁과 적자생존의 진화론적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에 대해 개인과 공동체 구원의 창조론적 나눔의 경제학을 주창해 왔다. 필자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관계에 근거한 <공감의 경제학>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창 6:6)하기도 하셨고, 인간의 협상안을 수용하기도 하셨고(창 18:22-33), 진노하여 진멸하려고도 하시면서(출 32:10) 타락한 인간과의 창조와 회복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신 점은 기독교 경제학 탐구의 중요한 동인을 제공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종들(선지자)을 통해

개인 구원과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이끄시는 과정에서 이 종들을 설득시키고 마침내 소명감으로 스스로 행동하게 하시는 '공감의 원리'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바울의 이름을 개명하신 것은 이들에게 공감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 열두 아들들이 히위 족속 하물과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창 34:7-17)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방인과 공감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고 대화설과 약탈을 저지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감하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役事) 하시는 방식이라면 기독교 경제학도 이 방식에 근거하여 새로운 탐구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공감의 경제학 탐색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을 탐색하기란 무지한 총동이거나 무모한 용기의 발로일 수도 있다. 이미 무수한 경제학 대가들이 경제사상의 지평을 아득하게 넓혔고 정교한 분석 체계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경제학 나아가 기독교 학문은 하나님 앞에서 걸음마 단계에도 못 미칠 것이므로 호기심 가득한 탐색은 우리의 즐거운 특권이랄 수 있다.



<공감의 경제학>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모델로 하여 공감의 프리즘으로 경제 현상과 활동을 살펴보고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사회 심리학자들에 의해 실험되어 온 인간의 합리적 행동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어 21세기 들어 <행동 경제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합리적인 판단이나 행동에도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논리가 초점이다. 즉 경제적 판단과 행동의 여건을 변화시키면 동일한 현상이나 사실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여겨지는 경제 주체의 선택은 달라지고 행위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수익률이 떨어져서 근로자 개인의 분배 몫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면, 성과금 500만원을 삭감하는 경우보다 연봉을 500만원 삭감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불공평하다는 이의를 훨씬 강하게 제기한다. 수술 1개월 후 생존율 90%와 1개월 내 사망률 10%는 동일한 위험도를 나타내지만 사람들은 후자보다는 전자의 경우에 수술 받으려는 의사결정을 더 쉽게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행동 경제학이 제시하는 경제적 판단과 행위의 부분적 비합리성 또는 합리성 이탈은 결국 주체와 객체 간 공감대 형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감을 형성하고자 하시는 바의 그림자를 따라, <공감의 경제학>은 다음과 같은 명제를 세우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의사결정과 행위는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경제적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형평성)의 판단이 상호관계의 유지와 회복보다 우선시하는 경제 질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사상, 문명, 산업의 발전은 참여 주체들의 경쟁적인 도전과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일방적인 정부 정책이나 독점적인 경제 행위가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참여 주체들 간 상호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다. 셋째,

경제적 행위의 도달적인 효율적인 균형은 참여 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감할 수 있는 근거는 경제 활동의 창조성, 타락성, 회복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넷째, 합리적(또는 비합리적) 판단과 행동은 '공감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선택이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회복의 길로 나아갈 때 현실적으로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 행동은 하나님과 공감하고 타인과 공감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수용될 수 있다. 다섯째,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과 행위는 '전략적 집단성'을 가진다. 비록 개인, 기업 또는 국가가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는 집단성을 가지므로 전략적으로 공동체 의식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개인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의 구원이 별개이지만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듯이, 개인주의적 경제 활동도 공동체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공감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왜 경제가 동맥경화증에 시달리는지, 일자리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자본과 금융의 흐름이 왜 문제가 되는지, 무엇을 위해 경제성장이 필요한지, 저축이 늘어나도 왜 투자는 늘어나지 않는지 등의 다양한 현안들을 <공감>의 프리즘을 통해 고민하고 탐구해 보려고 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과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명지대와 하위외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크리스천최고경영자과정(C-LAMP)에 소명관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